

3년만에 돌아온 윤달, 광주 묘 이장 늘었다

‘음력 2월 윤달’ 3월 22일~4월 19일 화장장 예약 전성 청명·한식 겹쳐 코로나로 미뤘던 화장 수요 급증한 탓

3년 만에 돌아온 ‘윤달’ (양력 기준 3월 22일~4월 19일)에 맞춰 광주지역에서 개장 유골 화장 (묘의 시신을 꺼내 화장하는 것)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윤달은 양력과 음력 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두는 달로 올해는 음력 2월이 두번이다. 예로부터 윤달은 ‘곳은 일을 해도 밭이 없는 달’이라고 알려졌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밭이 없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다.

16일 광주영락공원에 따르면 개장유골 예약은 4월 16일까지 이미 가득 찼다. 광주영락공원 개장 화장은 윤달을 끼고 있는 해 유독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평년에 1500~1800건의 개장 화장이 진행되던 영락공원에서 2014년과 2017년에는 각 3099건과 3774건의 개장 화장이 진행됐다. 올해의 윤달에만

각 1797건과 1875건이 집중됐다.

가장 최근 윤달이 낀 2020년에는 5536건의 개장 화장이 진행됐고 이중 2164건이 윤달에 집중됐다. 지난 2020년 개장 화장이 특히 많았던 것은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시 북구 사설 시설인 ‘새로나추모관’ 침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도 개장 유골 예약 문의가 넘쳐 예약시기도 기존 15일 전(3월 7일부터)에서 30일 전(2월 20일 부터)로 변경됐다. 예약이 넘치자 영락공원은 화장 시간을 기존(오전 8시~오후 5시) 시간보다 개장 전후로 1시간씩 늘렸고, 하루 개장 유골 화장 개수도 12기에서 38기로 확대했다.

영락공원측은 급증한 화장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2개월 계약직 직원을 1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윤달은 태음태양력 체계가 만들어진 춘추전국시대 처음 생겨났으며 음력을 사용하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보통 2~3년 마다 돌아오는데, 올해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맞는 윤달이다.

윤달은 효(孝)의 달로도 불린다. 윤달은 한 달 내내 날이 좋아서 굳이 길일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수의를 준비하고, 산소를 이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윤달 기간에 청명(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이 포함돼 있고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왔던 화장 수요까지 더해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윤달 기간 개장 화장을 하려는 지역민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영락공원 관계자는 ▲60대 부모 세대가 선산 등지에 묻혀있던 조상 묘를 납골당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부모세대가 떠나면 조상 묘가 방치될 것으로 우려한 젊은 세대 ▲중외공원·풍암저수지 등의 개발로 개발지역 인근 묘들을 개장 화장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윤달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풍속에 따라 광주지역 신생아 출생률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윤달인 2014년 9월 (양력

10월 24일~11월 21일)에는 양력 기준 11월 916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9%를 기록해 그 해 월별 기준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5월(6월 24일~7월 22일)에는 양력 기준 6월 8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48명 감소), 7월에는 832명으로 -12.6%(120명 감소)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윤달에 결혼을 피하는 일은 옛말이 됐다. 윤달은 ‘비어있는 밭’이라 불리며 결혼식을 꺼려하는 풍조가 강했지만 최근 젊은 예비 부부들은 윤달을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진행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둔 결혼식을 서두르다 보니 광주지역 예식장은 포화상태다.

서강성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은 “윤달은 태음력을 태양력에 맞추려고 하는 옛날 사람들의 안간힘이자 지혜”라며 “윤달은 ‘남은 밭’이라는 구실로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주기의 시간이자 만남의 시간이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노고단 시암재~성삼재 도로 경사면 붕괴로 통행 제한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에서 경사면이 무너져 내려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5분께 구례군 광의면 시암재에서 성삼재까지 1.5km 도로 일부 경사면이 붕괴했다.

도로 산형을 마치고 하산 중이던 탐방객이 경사면 붕괴를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구례군은 겨울철 상습 결빙 우려로 ‘천은사 주차장 입구~성삼재~시암재~달궁삼거리’ 14km 구간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면 통제했다.

평년보다 일찍 봄이 찾아오면서 지난 11일부터 통행 제한을 전면 해제했으나 낙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구간 통행을 다시 금지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복공사를 끝내더라도 추가 낙석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시암재~성삼재 1.5km 구간의 차량·행인 통행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43주년 5·18행사위원회 출범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가 1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올해의 슬로건은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오늘을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두환 비자금 환수 ‘추징 3법’ 통과를”

전씨 손자 ‘검은 돈’ 폭로에 5·18 단체, 엄정 수사 촉구

5·18 단체들이 전두환씨 손자가 전씨 일가가 불법 조성된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 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전두환씨의 비자금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환수 할 것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3개 공법단체와 함께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두환씨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징 3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징 3법은 ▲물수의 대상은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말한다.

재단은 “전씨 손자는 구체적으로 비엘에셋이라는 회사의 지분 20%,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들, 존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으며 규모는 몇 십억원대라고 말했다고 나머지 가족은 더 많은 검은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지금까지 비자금 출처에 관해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전씨 가족이 구체적인 비자금 사용에 관해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택시 선진화’ 부실감사... 보조금 20억 낭비 방조”

시민단체, 정보 전면 공개 촉구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과 관련, 보조금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는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사업자의 부정적 집행을 방조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6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일반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법인택시 회사의

노후 택시 교체를 위한 것으로 총 1848대를 지원했으며 56억 6800만 원이 투입됐다.

단체는 “해당 사업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2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보조금 낭비를 방조했으며 사실을 감추기 위한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자는 대·폐차 등록 말소 이후 신차를 등록하고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규정 중 신청 기한을 어긴 차량 556대에 지원금을 배부했다. 이에 사용된 금액은 16억 9200만 원

이다. 또 신차 등록 전에도 38대에 보조금을 지급 (1억 1600만 원)했으며 사업 시기 이전에 등록 말소한 차량 235대에 대해서도 지원금 5억 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이에 단체는 광주시에 ▲보조금 사용 재감사 ▲부정적 집행 보조금 추가환수 ▲감사실 혁신 ▲직무유기부 부당한 이익을 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 전면 공개 등을 요청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 인문계 고교 10곳 중 4곳 ‘0교시·야자’ 부활

광주 인문계 고등학교 10곳 중 4곳 풀로 조기 등교나 야간자율학습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학생살리기교육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신학기 시작 이후 지역 인문계 고교 51곳 중 조기 등교나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곳은 22개교(43%)로 파악됐다.

이 중 오전 8시 30분 이전 조기 등교를 시행하는 곳은 16개교(31%)이다.

오후 9시 30분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도 16개교(31%)로 확인됐다.

조기 등교와 야간자율학습을 함께 시행하는 학교는 10곳(19%)이다.

학생 휴식권과 동아리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

해 매주 수요일 정규수업을 마치고 조기 하교하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한 학교도 18개교(35%)로 나타났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시교육청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해 빚어진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연대는 “여전히 과거의 교육 방식을 지원하는 광주교육의 퇴행 속에 아이들의 삶과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학교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뿐 조기 등교·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